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October 2019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38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 4 복음의 소명과 사명

파트너 칼럼

- 6 깨어나는 거인 이집트 교회

안나의 골방

- 10 왕 앞으로

특별기고

- 12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 평화의 샘 작전 (1)
17 선교와 난민: 독일중심으로 살펴본 역사와 정책 변화 (1)

터키는 지금

- 23 트럼프는 시리아에 대한 터키의 공격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 최소 7명의 민간인 사망
26 아스마 빨래방 프로젝트
29 터키, 유럽 이주 위기 재점화 위협

중동지역의 오늘

- 33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치열한 라이벌인가

2019년 10월 25일 통권 110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룻,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p.38)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손경일 목사 (새누리 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나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고훈목사 (뉴욕하운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혁천목사 (상항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진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오레곤새로운교회)
김영하목사 (한스빌한인장로교회)
김태형목사 (ANC은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옥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주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매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벧내리교회)

순화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진영 선교사 (SWM 국제/미국 대표)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예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UT(Unfinished Task) 400캠페인(400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영적 대추수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연합기도동역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소서!
한국과 미국 및 전 세계 주님의 교회가 이 연합기도운동에 동참하게 하소서!
- 10월 9일부터 시리아 북동부 로자바 지역과 터키 국경에서 시작된 터키의 폭격과 양국간에 무력충돌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또한 폭격당한 무고한 거주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속히 전파되게 하소서! 교회가 없는 중동 전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소서!
- 특별히 아랍연맹(22개국: 알제리, 이집트, 수단, 코모로, 지부티, 모리타니, 모로코, 소말리아, 리비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복음전파를 위한 영적인 돌파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 10월-11월 현지 사역(10월 15일 - 11월 23일)의 모든 일정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1. KBP(Kingdom Business Partners) 터키 비전 트립: 10월18일(금) - 26일(토)
 2. 제3차 터키 교회개척리서치트립: 10월28일(월) - 11월4일(월)
 3. SWM 연합운영이사회(이집트): 11월5일(화) - 9일(토)
 4. 이집트 CP 수양회: 11월9일(토) - 11일(월)
 5. 터키어/아랍어권 CP 수양회: 11월12일(화) - 15일(금)
 6. PIT 모임: 11월18일(월) - 20일(수)
 7. B2N(Blessings to Nations 2023년 @ 아스펜도스)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과 네트워킹-모든 일정 중에 주님께서 모든 만남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직하게 인도해 주소서!
-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역대하 7:14의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땅과 민족이 주님의 고침과 회복을 받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복음의 소명과 사명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오늘날 복음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주 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국경을 넘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반겔리온(evangelion), 영어로는 Gospel 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반겔리온)의 시작이라” (막 1:1). 마 24:14의 천국복음에도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Evangelsim)는 에반겔리온에서 나온 파생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입니다. 전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증언하거나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교(Mission)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의 첫번째 의미는 ‘소명’ 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션(mission)에서 온 것으로 보내다(to send)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토티’라는 단어입니다. 사도(아포스토로스 -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선교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 17:1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8)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이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mission)의 두번째 의미는 ‘사명(mission)’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는 마지막 때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온전한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중에서 접속사 ‘과(와)’(헬라어 kai)는 점진적인 의미보다는 ‘동시에’라는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 현장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고 동시에 가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온 열방과 모든 민족, 방언과 백성들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미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며 동시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거룩한 소명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는 거인 이집트 교회

글: 허드슨 사역자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사 19: 23~25)

이집트의 데스티니(Destiny)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교회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19장의 말씀이다. 이집트 교회의 데스티니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애굽과 앗수르는 지금의 중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집트에서 터키로 이어지는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로가 이집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집트에는 중동 최대의 천 만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

이집트 교회는 2000년 정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다. 로마제국의 핍박과 이슬람의 핍박을 견디어 온 저력이 있는 교회다. 마가의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집트 교회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최초의 신학교가 생겼고, 수도원운동의 발상지가 되었으며,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집트 교회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지난 1400년의 이슬람 통치하에서 수많은 핍박과 차별을 이기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집트 교회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22개국 4억이 넘는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가 활발한 곳이 이집트이다. 같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22개국가에 이집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언어의 장벽 없이 사역할 수 있다. 아랍권 22개국가는 가장 복음화 되지 않는 선교의 최전방이다.

깨어나는 거인 이집트 교회

2011년 중동을 휩쓴 시민혁명은 거인 같은 이집트 교회를 깨어나게 했다. 혁명 기간 내에 2번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집트교회는 이집트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최근 5년간 새롭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수백개가 넘는다. 이는 지난 1400년의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다. 이슬람 정권은 지난 1400년의 역사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허가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수나 증축도 아주 까다롭게 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수

많은 교회는 법적인 허가 없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혁명이후에 현재까지 수 백개의 교회가 합법화되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는 이집트교회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집트에는 약 10만개의 모스크가 있고, 교회는 약 3000개정도 추정된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합법화된 교회는 총 1162개이다.

시리아 난민사태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깨어나는 이집트 교회

2012년 1월 이집트의 한 대형 개신교회의 예배를 참석했을 때 이집트 교회는 시리아와 시리아교회를 위해서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기도회를 보면서 이집트 교회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2019년 현재까지 시리아 사태는 장기화되고, 약 700만명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터키 400만 명, 리비아 150만 명, 요르단 100만 명, 유럽 50만 명등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은 시리아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랍어가 가능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랍어 사역자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와 기회는 이집트 교회에게 스스로 선교적 사명을 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교회와 10여개의 선교단체들이 사역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됨으로 파송의 경험을 쌓게 되고, 또한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경험들을 토대로 선교적 자산들이 쌓여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자산들을 통해서 이집트 교회가 더욱 선교적 주체로 나아오는데 중요한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집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한 과제

지난 3년간 이집트인들을 훈련하고, 아웃리치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 플랜팅 사역을 하면서 이집트의 교회환경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경험이 녹아 있고, 선교를 향한 교회들의 기도와 헌신이 높은 환경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자체가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인 삼자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 교회는 오랜 콕트정교회의 배경과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파송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100만 명 정도의 개신교 교회는 아직도 스스로 자립이 되어 있지 않고, 해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교회내의 헌금도 열악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처우도 열악하다. 또한 2011년 시민혁명이후 불안한 이집트 상황은 이집트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집트 교회는 아직도 선교하면 외국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의존적인 자세는 이집트 교회의 순수한 선교적 헌신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노하우와 사례 전수

중동의 난민사태는 이집트 교회에 영적인 도전을 주고, 사명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 교회 내에서 선교헌금은 전무한 상태다. 선교헌금 뿐만 아니라 십일조 등의 헌금도 열악하다. 이런 이집트 교회에 한국교회의 헌금생활과 선교헌금의 사례들은 이집트 교회들에게 큰 도전과 모델이 될 것이다.

저자는 몇 달 전 터키로 함께 아웃리치를 간 이집트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선교 헌금과 전문적인 선교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한국교회의 사례들을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집트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유업인 선교의 가치를 가르치고, 한국교회의 사례를 전달한다면 이집트 교회들이 건강한 선교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러닝 메이트가 필요한 이집트 선교

이집트 교회의 선교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은 적절해야 하며, 이집트를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절제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펌프질을 할 때 처음 있어야 하는 마중물처럼 외부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마중물은 이집트 교회자체에서 나오는 자원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집트 교회와 이집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뛰어줄 러닝 메이트가 필요하다. 스스로 자립하고, 잘 할 때까지 함께 뛰어줄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함께 뛰면서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코치들이 많이 필요하다.

작은 교회와 성도들도 참여하는 풀뿌리 선교운동

한국에서 성도가 3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개척교회의 목사님께서 선교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집트를 방문하셨다.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확장에 동참하고픈 열망이 있으셔서 이집트까지 오셨다.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중간 공항에서 커피를 드시고 싶으셨지만,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드시질 않으시다가 누군

가 두고 간 컵을 화장실에 가서 씻으셔서 가지고 가신 커피믹스에 타서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집트에 오셔서 선교헌금으로 쓰라고 선교헌금 봉투를 주시고 가셨다. 나는 그 봉투를 1년 넘게 뜯지를 못하고 있다. 그 헌금봉투는 내 책상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 이유는 내가 사용하는 헌금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모은 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재정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들의 귀한 헌금은 한국선교의 밑거름이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성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헌금과 선교헌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교 풀뿌리 운동이 이집트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집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당장은 100% 자립하기는 어렵지만, 20%~30%씩 시작하여 나중에는 100% 자립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랍권 22개국과 중동에 이집트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섬기는 그날을 기대한다. 이집트 교회가 헌신하고, 삼자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그 기쁨이 이집트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안나의 골방 10월의 기도

왕 앞으로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죄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씻으셔서
왕의 식탁으로 이끄셨습니다.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익숙해져 있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던 중,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내안에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양육한 그의 삼촌 모르드개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대답이
너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였을까요?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물었을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감동을 주
셨습니다.
사랑, 사랑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곧 죽음을 맞이할 지 모르는 현실 앞에서
에스더는 그 사실보다는 모르드개가 배움을 읽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땅에서 가장 사랑하는자
그녀가 왕궁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해준 모르드개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근심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정원에서 왕이 허락한 모든 부와 재물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수 있는 왕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녀의 삶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 사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모르드개의 요청..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은





사랑하는 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왕의 정원에서 충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녀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수 있게 했던 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
존경하는 분인 모르드개에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그 안전지대를 일어나
익숙해져 있는 삶에서 나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삶에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드시고,
진동하는 것들을 흔드셔서
우리를 왕 앞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모순적인 사랑!

왕궁에서 왕 앞에 나아갈때,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익숙해져 있는 삶에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원수가 두려워떨고 있음을 아시나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사랑하고 섬길때,
원수의 마지막 날이 가까와 오고, 원수가 두려워하였듯이,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끝이 왔듯이
우리가 왕궁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원함으로 왕앞에 나아가 왕을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원수의 끝이 가까와 오고 있음을..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오늘 모르드개가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으로 나아가게 도전하였듯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너가 안주하고 머물 곳이 아니다.
너의 부르심은 단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은 단지 나를 믿고 잘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창세 전의 부르심인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병에 빠진 자로
너의 창세 전의 부르심인 왕 앞에 나아가
왕의 얼굴을 구하며, 왕의 마음으로 왕과 함께 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중보자로 사는 것이다.
지금 예수 믿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끝이 아니다.
더 큰 것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나와의 친밀함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가르치길 원한다.
그 안전 지대, 익숙한 곳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자원함으로 더 큰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내 앞으로 나아오라.

왕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왕 앞에 나아가 왕으로부터 배우며,
왕을 사랑하고 섬길 때입니다.
아멘!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 평화의 샘 작전 (1)

글: 김선희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김선희 선교사의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은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 서론
 - 터키 시리아 북동부의 영토를 장악한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
- 11월** -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과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 반응
 -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과 다민족들의 반응
 - 바벨론의 징계와 메데 민족들

성경은 악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10월 9일)에 있었던 터키의 시리아 침공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삼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갔을 때,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왕에게 아람 왕(시리아)의 손에 넘겨진 라못 길리앗을 되돌려 찾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을 제안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같이 속삭입니다. “나와 당신은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이며,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병거와 무기는 함께 나누어 사용하지 않았는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확신을 받기 원했으며 북 이스라엘의 대언자 사백 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라못 길리앗을 침공하며 주께서 그곳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모든 이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유다 왕은 이들에게 진실을 느낄 수 없었는지, “진실을 말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는지 한번 불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갔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는 모든 대언자들이 한입으로 왕에게 좋게 말하였으니 미가야 역시 다른 대언자처럼 좋은 소리를 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으며, 이들에게 악한 주인이 없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는 천국 보좌의 좌우에 앉은 주님과 성령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북 이스라엘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하는 영으로 가득할 것이며, 아합에게 내린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터키 군대와 대통령 에르도안

이것으로 인하여 선지자 미가야는 왕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어 감옥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은 갑옷 이음새 사이에 들어 온 활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장렬한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인은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수요일 오후 터키군의 시리아 침공을 보면서 여러가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탐욕과 권력 때문에 시리아의 영토가 북과 남, 두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2011년 이후 끊임없이 일어난 내전으로 오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은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비참한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서로를 불신하는 민족 분열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의 북동부를 침공한 터키 군대와 맞대어 저항하는 '쿠르드 테러 집단PKK'과 '쿠르드 예지디 저항 집단 YPG'는 자신들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며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 IS'와 '시리아 자치 연합군 SDF'와 함께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백여년 넘게 터키 시리아 인근 국경 지역을 떠돌아 다니면서, 테러를 이용하여 독립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 민족에 대하여 강한 반민족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단체 행동은 항상 불법이며 테러라고 단정 지어 무참하게 이들의 삶을 짓밟아 왔었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PKK 쿠르드 테러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산속에 은둔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검탈하고 물건을 약탈하는 등 아주 악한 테러 집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YPG 예지디 쿠르드 저항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IS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과 함께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암덩어리 같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리아 터키 북동부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민족은 거의 대부분 터키 쿠르드, 시리아 쿠르드, 예지디, 이라크 쿠르드, 이란 아제리 쿠르드 또는 아프칸, 투르크 민족으

로 히타히 인도 유럽 언어권 그룹으로 사백 여개가 넘는 쿠르드 방언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활하고 넓은 메소포타니아 지역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던 이웃 공동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쿠르드 민족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초원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넓혀나갔으며, 움마 같은 집단 공동체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경제의 모든 이익과 부는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그들의 결정에 복종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며 이들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존재로 여겨져 아무도 대항하거나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명령과 행동, 가르침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의 많은 청소년들이 유혹되어 그들의 집단에 참여하고 집단 생활에 감금되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갑자기 터키 군대를 터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보내어 그곳을 비무장 안전 지대를 확보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은 그곳에 테러 집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위에 강력한 군사 무기를 설치하여 터키로 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으로 터키 모든 남성이 정기적으로 강한 군사 훈련을 받으며,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신식 무기를 사용하여 터키 시리아 북동부를 침략하여 단계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킬 것입니다. 터키 정부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전사한 터키 군인들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대대적인 광고를 연속해서 보내고 있으며, 자국민들은 'PKK/YPG 테러 집단'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반복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느 소셜 미디어에 올려진 하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제목은 '터키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작전' 이었습니다. 터키 군대의 총에 맞아 죽은 어린 남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 사진에 나타나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터키 정부를 자극하여 불쾌함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을 본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온 지도자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거짓 보고를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도의 제사장은 '터키 군대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공식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본인은 터키 시리아 북동부 침략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들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을 나누고 있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나눌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누는 것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면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번 군사작전을 보며 느낀점 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터키 시리아 북동부의 영토를 장악한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

터키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 10월9일 터키의 경계선 시리아 땅 북동부에 깊이 32km(20 마일), 넓이 480km(300 마일) 길이의 북도와 같은 비무장 안전지대를 만들어 터키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보안 구역을 유지하는 군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평화의 샘' 작전을 통해서 2011년부터 일어난 시리아의 내전 중에 발생한 약 삼백 육십만 명의 난민들 가운데 일백 만 명을 "안전 지대(비무장지대 DMZ)¹⁾에 이주시켜 재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의 북동부에 수만 킬로미터의 안전지대를 확장하여 터키 시리아 난민들을 안전 구역 안에 거주 시키며 주위에 있는 'YPG²⁾ 예지디 쿠르드 저항 세력'과 'PKK³⁾ 쿠르드 테러 집단' 그리고 'IS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지난 수요일 오후 4시에 트위터와 터키 방송을 통하여 공격 명령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터키 남동쪽 국경을 가로 지르는 지역에 북도를 생성하여 테러 집단의 위협을 막고 이곳에 평화를 가져 오는 것이다." '평화의 샘' 군사 작전은 터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보호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수 있는 안전 지대를 설립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국방부의 작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평화 샘/ Baris Pinar'은 국경 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 된 것이며, 테러의 위협을 막고 시리아 북동부의 국경 광활한 다쉬 지역에서 테러 집단이 다시는 들어 오지 못하도록 조식을 해제 시키고 그곳에 시리아 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곳이 될 것이다." 터키 군대는 지난 목요일 이른 새벽부터 '쿠르드 테러 집단 PKK'와 '예지드 저항



현재 터키 군대가 시리아에 파견 되어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난민들을 이주시킬 예정이다.

1. Safe Zone or Peace Corridor, was a demilitarized zone (DMZ) established on the Syrian side of the Syrian-Turkish border / 안전지대는 DMZ 비무장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터키의 군사 보호 아래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키는 것이다.
2.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KDMOUaawZ0j:https://en.wikipedia.org/wiki/People%2527s_Protection_Units+&cd=14&hl=en&ct=clnk&gl=tr/ YPG 예지디 쿠르드 독립 연합군을 부르는 말이다. (Kürtçe: Yekneyên Parastina Gel)
3. The Kurdistan Workers' Party or PKK (Kurdish: Partiya Karkerên Kurdistanê) is a Kurdish far-left militant and political organization based in Turkey and Iraq. / PKK 쿠르드 노동 집단: 15-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모집 이용 되고 있으며, 주로 파괴적인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테러 집단으로 불려지고 있다.



북동부 시리아로 들어오는 터키 군대 - marxist.com



북동부 시리아를 떠나는 NATO - nbcnews.com

집단 YPG의 거주지 인 라슬라인에서 터키 국경 지방 산르울과 와 제이란 프나르 지역까지 두 개의 박격포 포탄을 발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사상자는 490여명이며 최신 전투기가 D지역에 착륙했으며, 다른 활주로는 시리아 침공을 위한 이륙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침략 작전은 '평화의 샘'이름으로 '쿠르드의 테러 집단 PKK'와 '예지디 저항 단체 YPG'에 대한 군사적 포고이며, 터키의 막강한 군대 조직과 최신식 무기를 투입함으로 시리아 북동부의 개방된 평원을 탈취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저항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IS, PKK, YPG 테러 집단을 깨끗하게 정리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비무장 지대로 확정하여 비무장 안전 보호 구역으로 만들어 터키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합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광활하게 개방 된 평원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곳은 두 번째로 큰 나토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며, IS에 가담된 일만 명이 넘는 많은 테러 범죄자들이 나토의 통제 아래 감금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터키 국경을 따라 약 32km(20 마일) 깊이의 완충 지대를 설립하여, 다쉬 지역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터키가 차지하여 그 땅을 통치한다면 그곳에 거주하는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미군과 나토는 여러 테러 집단에 대하여 자체 수호 병력인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연합군을 만들어 군사 훈련을 시켰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로 인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2)는 11월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선교와 난민: 독일중심으로 살펴본 역사와 정책 변화 (1)



글: 김성훈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
ARILAC

김성훈 선교사의 ‘선교와 난민’은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 개요

- 20세기 유럽, 독일 인구 이동과 난민의 역사
- 20-21세기 독일의 난민 정책과 그 변화

11월 - 독일의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절차

- 현재 진행되는 제도적, 비제도적 난민 사역들

12월 - 앞으로 남은 과제

개요

본인은 성경번역 선교사로서 싱가포르에서 1년 반 동안 언어학 훈련을 마치고 1994년 1월, 영국에 가족과 함께 도착하여 그 당시 이란의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도피한 터키계의 이란 남 아제르바이잔 피난민들과 더불어 런던 근교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 디아스포라 난민사역의 시초가 되었던 것 같다. 2013년 신구약 성경번역을 출판하고, 영국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복음주의 동역자들과 로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남은 과업의 “신적 모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선교계에서 트렌디한 단어로 변한 ‘디아스포라’는 아직도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고 혼란 스러운 듯 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이주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들이 이미 정립되어 일각에서는 이민이란 범주 속에서 그 흐름을 인간의 총체적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향에 반하여, 이를 개신교 복음주의의 틀속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으로 축소하여 선교(신학)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로잔 디아스포라 학술모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논쟁을 사회학적관점에서 폭넓게 조명하고자 했던 제후 한실스는 논의를 중단하고 모임을 떠나기도 했다. 한국선교가 전통적인 선교의 관점을 가진 복음주의 디아스포라 운동의 범주속에서만 이해하게 된다면 다양한 인구이동이 낳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이 되어버린 선교 환경에 적지않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보인다. 차제에 좀 더 폭넓은 관점, 즉 비즈니스 선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차학문적인 영역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오늘 다루고자하는 유럽과 독일의 사례는 좀 더 우리들의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먼저는, 유럽을 포함하여 독일에서 인구이동과 난민과 관련된 역사는 어떤가를 살피고, 두번째로, 20-21세기 독일의 난민을 포함한 이민 정책들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세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비제도적 난민 사역들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20세기 유럽, 독일 인구 이동과 난민의 역사

근대 유럽의 인구이동과 난민 수용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C. Van Mol 과 H. de Valk(2016)^①에 의하면, 1차는 1973-1974년의 오일 쇼크때까지로서 식민지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인력이 유입되던 시기이다. 그 시기에는 주로 비서구에서 서구로 인력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2차 시기는 오일 쇼크로 시작해서 1980년대 후반의 구소련의 몰락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북유럽의 이민이 크게 강화되어 가족들의 재회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동시에 망명이민이 증가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점점 더 남부 유럽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3차 시기는 철의 장막의 몰락이후부터 오늘날까지로 본다. 이 시기에는 유럽 연합(EU)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유럽내 인구 이동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다.

1차 시기에는 독일을 선두로하여 터키(1961), 모로코(1963), 포르투갈(1964), 튀니지아(1965), 그리고 유고슬라비아(1968)등과 상호 협약을 맺어 인력송출 협력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인력송출 국가들도 적지않은 외화 수입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던 시절이었다.

195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적어도 1천 2백만 명의 인구가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동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중앙 아시아와 동유럽으로부터 4백 4십 5만 명의 독일인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 중 63%는 1989년 이후에 한국한 사람들이다.

2차 시기에는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적인 전망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시절이라 제일 먼저 스위스(1970)와 스웨덴(1972)이 인력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곧 이어 독일(1973)도 중단을 선언 했지만 이미 정착한 노동인력들이 가족들을 초청하므로서 이주제한의 정책

(1) C. Van Mol & H. de Valk, Migration and Immigrants in Europe: A Historical and Demographic Perspective, in B. Garcés-Mascareñas, R. Penninx(eds.), Integration Processes and Policies in Europe, IMISCOE Research Series, 2016, pp.31 - 45.

은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 1961년에 제정된 유럽 사회 헌장(the European Social Chapter)의 제 19조에 따라 이주 권리로 인정되었다. 유럽 출신 노동력은 줄어가고 비 유럽 출신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특히 터키, 북부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전역에 확산되기도 했다. 경제가 불황을 겪던 이 시기에는 반 이주자 운동이 일어나서 프랑스에서는 르펜(Le Pen)의 국민전선이 이주자들로 인해 실업이 생긴다는 이유로 정치적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이주자들의 동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망명도 점점 증가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 34,000명에서 1990년 말에는 749,000명 정도로 치솟았다. 이런 극적인 변화에는 소련 연방의 해체와 유고 내전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3차 시기에는 인구 이동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던 시기인데 위에 언급한대로 소련 연방의 해체와 유고내전으로 인해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거의 2백만 명이 서유럽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민자의 유형이 대단히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전문인, 다국적 회사의 고용인, 국제 기구, 기술자, 의사, 간호사, 난민, 망명 신청자, 유학생들, 불법 체류자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각 국가들은 통합이슈를 가장 중심정책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정착 성공율이 높은 전문인들과 고도의 숙련공들을 선호하여 이들에게 블루카드제도(Blue Card Scheme, EU-wide residence and work permit)를 실시한 바 있다. 고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도 교육후 취업알선제도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등지에서 도입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21세기 들어 5명 중에 1명 정도 유럽인들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전체인구의 4% 정도만 해외거주나 일자리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유로 통계(Eurostat, 2011)에 의하면 2008년에만 유럽 시민권자들은 거의 2백만 명이 유럽연합 안에서 이동(Intra-EU mobility)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가장 활발한 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1990년에 맺은 상호 협약으로 인해 수많은 폴란드인이 노동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유럽 내에 인구가동이 그 다음으로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루마니아였다. 내부 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언어적 친밀성으로 인해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경기가 살아났던 스페인에도 많이 정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와 실업율이 치솟은 그리스와 스페인은 생존을 위해 다른 국가들로 떠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경제가 안정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해외구직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정착을 선호하는 국가는 벨지움, 독일,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 21세기 독일의 난민 정책과 그 변화

마르쿠스 앵글러²⁾에 의하면 독일은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의 난민 유입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본다. 이런 대량 난민 유입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동안 잠잠하던 독일 제도권 교회들에게도 적지않은 도전을 주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그동안 독일이 주도해온 난민에 대한 범 유럽의 해결책은 거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제기된 사회학적 변화인 고령인구로 인한 노동력 감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난민 수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 실제로 이들을 수용하는 데 따른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와 인종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외부의 인구 유입에 가장 큰 비중은 망명자들이다. 주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발칸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반수 이상(428,000명)이 등록되고 거의 100%가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대략 10개 국가에서 총 1백 9만 명정도가 보호를 위해 등록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³⁾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5년 9월에 난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독일에 안착하는 방안을 오스트리아와 체결하는 개방정책을 시도했는데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당시 헝가리에서 일어난 난민 사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응으로 판단 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 유럽인구의 대량 유입을 유도하게 되었는데,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인들의 터키, 레바논, 요르단의 이동으로 연결되고 2015년도 이들을 지원하던 세계식량기구(WFP)의 공급약화상황이 겹치면서 다음 종착지로 유럽으로 루트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14년 동안에는 난민 루트가 주로 이탈리아를 통한 지중해 루트였는데 2015년 중반부터 비용이 적고 안전한 터키와 그리스를 통한 동 지중해 루트를 통해 대량 유입이 시작되었다.

(2) 그의 글Germany in the refugee crisis-background, reactions and challenge(2019 년7 월13 일에 인터넷)에서발췌함. His paper was onc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Impact of the Migrant Crisis on Germany and European Union held in Poznan on April 26, 2016, organized jointly by the Institute for Western Affairs and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3)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2016 통계

지난 몇년동안 독일의 난민 정책은 서서히 난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적절한 신청자 숫자, 긍정적 경제성장, 그리고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등으로 인해 이민과 통합 정책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초청노동자(Gastarbeiter)'의 사회적문제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합 정책(the integration)을 통해 언어와 문화 동화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도록 격려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망명자들에게 9개월 동안 금지한 취업을 3개월로 단축하는 조례를 채택하기도 한 것이다.

독일은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고수하면서 유엔고등 판무관실(UHCR)과 난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어도 첫 2년간은 주거할 수 있도록 숙소와 허가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점점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각 도시마다 난민 수용을 위한 거주공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6년 3월 경에는 전국의 스포츠 센타 687개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소로 대체되기도 했다. 독일의 행정주무 관청인 이민, 난민을 위한 연방 사무실(BAMF)은 일손 부족으로 현재 70만 명의 신청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 산적한 난민 신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지만 특히 발칸지역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폭주한 난민신청자를 되돌려 보내는 일은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 전쟁이나 내부의 문제가 안정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제고비니아 등은 더 이상 난민지위국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2015년 10월 24일에 망명 패키지라는 조례를 발동하여 신속한 망명 절차, 간소화 된 숙소 건설절차, 발칸 국가들의 신청을 받지않는 대신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등 연방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연방정부는 망명 패키지의 미흡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 접수 센터(special reception centres)'를 세워 안전 국가에서 오는 망명자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2 망명 패키지를 2016년 3월에 발효하였다. 발칸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국가로 지정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아 등에서 오는 망명신청자들을 국경이나 지정된 곳에 강제수용하여 대도시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중에 있다.

난민들에 대한 독일의 여론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대체로 독일 사회는 자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난민들과 연대하기를 원하고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전체인구의 10%정도가 실제적인 난민들의 필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망명자나 난민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 NPD는 난민구호를 위한 쉼터 등을 설치하는것에 반대하고 자기들의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난민 지역을 공격하여 방화하기도 하는데 2015년에만 924건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연방 범

죄국 통계). 현재 폐기다 운동,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등이 대중을 선동하여 반 이민 데모를 주도하고 있다. 이 당은 점점 지지를 확보하여 전체 유권자의 12%를 얻어 제 3당이 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유럽 국회에도 진출했다.

결국 독일은 대부분의 난민 망명자들이 독일에 정착하게 되므로서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의 상황은 현재 8천 2백만 명(2006년 통계)의 인구가 당시의 출산율을 고려하고 이주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5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⁴⁾됨에 따라 그 공백을 매울 자원으로서도 난민들의 순조로운 정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통합은 독일로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보이고 젊은 난민 그룹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독일의 교육, 훈련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돕는 일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언어 교육 및 교사 자원의 부족, 주거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강제수용소에 장기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물들이다.

난민의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EU)은 2016년 3월 20일에 터키와 협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그리스로 들어온 모든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송환하고 그 중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연합(EU)이 인도적인 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72,000명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유럽국가들에 재배치하도록 조치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유럽지도자들은 지중해를 건너들어오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할 생각이며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면 터키로부터 추가적인 구제를 진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은 전례없이 2015년 한해만 해도 총 2백만 명의 국외자들이 유입되었는데 그중 1백 14만 명이 난민 지위자들이다. 이는 과거 동서독 통합에 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미래 독일 사회전체의 진지한 변환을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선교와 난민(2)는 11월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시리아에 대한 터키의 공격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 최소 7명의 민간인 사망

글: 그레그 노르만 (폭스 뉴스)

번역: 한국 번역팀

보도에 따르면 터키 F-16 전투기들이 시리아 국경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군이 사용 중인 탄약고나 별판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고 현지 트레이 잉스트 언론이 보도했다.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터키의 군사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시위대와 전쟁 모니터 등이 이번 공습으로 최소 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무력화하고 안전지대 구축을 이끌어 시리아 난민 귀환을 촉진하는 '평화의 봄 작전'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는 지난 일요일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이후 일주일 내내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앙카라는 시리아 쿠르드군을 터키 내 쿠르드 반군과 연합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이번 공격을 지지하지 않으며 터키 정부에 이번 작전이 잘못된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터키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전념해왔으며, 우리는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미군 병사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리아에 대한 터키의 침공은 포로가 되었던 IS 멤버들을 풀려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케인장군은 말한다.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 민주당 대변인은 수요일 터키 전투기가 "민간 지역에서 공습을 시작했다"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에서 "터키 군대는 시리아 군대와 함께 시리아 북부의 PKK / YPG 및 대쉬(Daesh)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평화의 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남쪽 국경을 가로 지르는 테러 경로를 막아내고 지역에 평화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쿠르드족은 폭격에 대응하여 미군에 항공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군 관계자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참여하지 말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터키 군대가 수요일 아침 탈 아비야드와 라스 알-아인 인근 시리아 북동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터키의 국영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의 포병 부대가 탈 아비야드의 시리아 쿠르드족 목표물들을 공격해 왔으며, 라스 알 아인에서 발사된 두 개의 박격포 포탄이 터키 국경 도시 실란 피 나르를 강타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기반을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민주군 소속 전투원 한명이 사망했으며





터키군 탱크 한 대가 화요일, 산리우르파 지방의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터키 쪽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다. (AP)



트럼프, 시리아 병력 철수 옹호, 터키에 경고문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데 대해 쿠르드족 시위대와 자신의 당으로부터의 비난과 직면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루카스 톨린슨 기자가 전했다.

라고 말했다.

터키도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중립시키고 무장 세력들의 억압에서 현지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툰은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관리들은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 국가가 자국 영토 근처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리아 국경 도시를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의 침략에 대한 기대는 트럼프가 일요일 미군이 터키의 진압보다 먼저 철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상승했는데 이는 시리아 쿠르드족을 근본적으로 버린 미국의 정책 변화다. 그러나 트럼프는 터키의 시리아 진출이 도를 넘어서면 터키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에서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6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SDF 대변인은 또한 마쉬라파 마을의 "터키 폭격"의 결과로 두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티베스피예에서는 네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쿠르드족이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저항 행위를 근절하라"고 수요일에 촉구한 이후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시리아 북부와 동부의 자치 정부로 알려진 현지 민간 쿠르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민족이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이 민감한 역사적 시기에 저항행위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쿠르드족은 또 "총동원"을 촉구하면서 "인도 주의적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닥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 냉혹한 메시지는 수요일 국경 북쪽에서 전해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파흐레틴 알툰 터키 대통령 공보실장은 워싱턴 포스트(WP)에 앙카라의 뒷편에 "집결하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했으며, 그는 "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와의 싸움도 이어받을 것"이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그 움직임들은 양측 진영의 정치인들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아왔다. 애리조나의 마사 맥샐리 상원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의 비평가들은, "대통령의 계획이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맥 샐리는 20일 '마사 맥칼럼과의 이야기'에서 "중동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남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의 위협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세대간 투쟁과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시리아 쿠르드족 '임시 국가'를 먼저 지원했다가 현재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며 미국이 시리아 쿠르드족과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처럼 민감한 주제에 대한 무모한 태도는 전 지역에 불을 지를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터키 포병들이 23일 산리우르파 지방 시리아와의 국경 부근의 새로운 진지에서 목격되고 있다.(AP/DHA)

이에 앞서 IS 무장세력은 16일 시리아 북부 도시 락카에 있는 시리아 민주군 거점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락카는 한때 이 지역에서 무장세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실상의 IS 수도였다.

시리아 북동부 여러 수용시설에 수천 명의 IS 전사를 억류하고 있는 SDF는 터키군의 침입이 극단주의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 쿠르드족 연합군은 지난 3월 시리아 동부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통제된 IS 지역을 마지막으로 점령했다.

Is는 이번 테러에서 락카 쿠르드족 주둔지에 대해 3차례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다. 사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란 국영 TV는 또한 수요일 이란 서부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와의 국경 근처에서 특수 작전부대와 함께 기습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TV는 예상되는 터키군의 시리아 공세에 대해 언급하거나 훈련 이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폭스뉴스의 제니퍼 그리핀, 루카스 톰린슨, 빅터 가르시아, 돔 칼리치오, AP통신 등이 이 보도에 참여했다.

<출처: <https://www.foxnews.com/world/trump-turkey-syria-kurdish-troops-military-assault>>





아스마 빨래방 프로젝트

글: 제카이 목사(이즈미르)

번역: 한국 번역팀

이즈미르 바스마네에 있는 빨래방과 아동활동센터 운영을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수백가구의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그들의 옷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소중한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큰 학업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더라도, 아이들은 모두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야는 넓어졌고 사회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의 터키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학교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이 터키어의 실력이 향상되어 부모보다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작은 통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을 위해 투자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사역을 이전과 같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주 새로운 얼굴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빨래방에서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방 가까이 비탈길이 있는데 그 위쪽 꼭대기에 어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가 어찌된 일인지 고장이 나서 비탈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차는 빨래방 창문 입구를 박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인 오후 3시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기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돌 소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아이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알레포에서 있었던 폭격을 기억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가 나자마자 보관중인 세탁물 가방은 금방 옮겼기에 깨진 유리와 섞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지 18시간만에 그 차를 주차했던 차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차주인은

지역 주민이었는데 차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고 놀라고 보험 등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곳 빨래방에는 우리와 함께 일해온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함께 일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이즈미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유럽으로 갔는지 아니면 시리아로 돌아갔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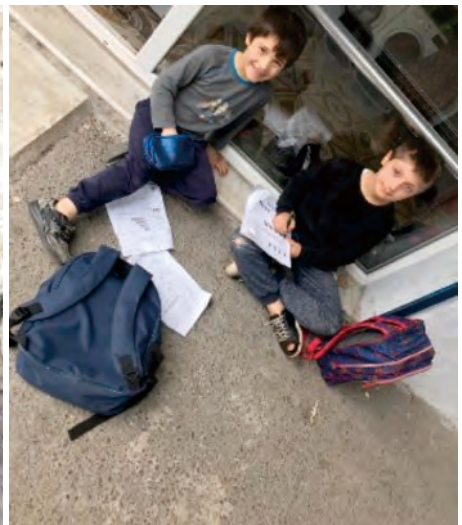
다.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던 여성 중 한 명은 가족들과 함께 라마단 마지막 날에 있는 바이람을 지키기 위해 알 하사카(NE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시리아를 떠난 3-4년 후, 나이든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녀가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했고 이 방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그 가족들이 그녀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그 지역의 상태에 대해 나눠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아직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총성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의 80%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큰 아이들이 터키로 돌아오기를 간청했기에 그녀는 터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터키식 신분증을 숨기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억류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전후 사정과 인콰를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최근 이곳에는 반 시리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시리아인들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있는 이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을 위해 아랍어 수업을 제공하던 학교들이 그들이 터키에서 머무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 수업 과정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은 터키의 일반 학교로 전학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주동안, 우리 터키인 도우미들은 우리 근처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의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 이 학교들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인쇄 용지와, 청소용품과 같은 물품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후한 후원으로 3년 내내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없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동안, 우리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그 다음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도움받을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예전처럼 가난하고, 원래의 세탁기들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팀에는 사랑스러운 동료들이 있고, 시리아 도우미들의 작업 패턴도 잘 조율되어 있고, 많은 "노인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빨래방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유럽 이주 위기 재점화 위협

글: 소에렌 캐런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는 터키 국민에게 무비자 유럽 여행을 허가하지 않으면 유럽으로의 대량 이주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위협했다. 터키는 현재 약 350만 명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주로 시리아인, 이라크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이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유럽으로 이주할 것이다. 사진: 터키의 아디아만 난민촌. (이미지 출처: UNHCR)

터키는 터키 국민에게 무비자 유럽 여행을 허가하지 않으면 유럽으로의 대량 이주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위협했다. EU는 2016년 3월 유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터키가 막겠다고 약속한 EU-터키 이주 협상에서 터키가 무비자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자유화에 합의했었다.

유럽 관료들은 터키가 이주민의 유입을 줄였지만, 비자 자유화를 위한 모든 요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7월 15일 EU 외무장관들은 터키의 석유와 가스 시추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앙카라와의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메블루트 차우쇼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지난달 22일 터키 TV 채널 TGRT 헤버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터키 여권 소지자들에게 유럽 26개국에 대한 무비자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가 이주민 협상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재허가 협정을 중지했다,"고 그는 말했다.

하루 전, 터키 내무부 장관 쉴레이만 소일루는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터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영 아니돌루가 발행한 논평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이동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문을 열면 6개월 이





상 생존할 수 있는 유럽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발효된 이 이주 협정은 2015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위기를 필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과 성급하게 맺어졌다.

이 협정에 따라, EU는 터키에 60억 유로를 지불하고, 터키의 8천 2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유럽 무비자 여행을 허가하며,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터키는 유럽으로 향하던 이주자들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불법적으로 도달하는 모든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현재 약 350만 명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주로 시리아인, 이라크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이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유럽으로 이주할 것이다.

외무장관 차우쇼울루의 발언에 대해, EU 대변인 나타샤 베르토드는 터키가 EU-터키 협정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비자 자유화의 조건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터키 당국자들은 특히 비자 자유화와 EU 가입과 관련하여 EU가 이 협상을 끝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 관리들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센젠(개방형) 여권 없는 지역으로의 터키 국적자의 무비자 접근을 신속히 추적하고 2016년 7월 말일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던 터키 EU 회원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약속했다. 터키는 비자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2016년 4월 30일까지 72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터키 여권의 보안 기능을 EU 표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 EU 여행에 사용된 위조 및 사기 문서에 대한 정보 공유, 터키 내 비 시리아 이주민에게 취업 허가 등이 포함된다.

유럽 관리들은 터키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는데 이용되고 있는 엄격한 테러방지법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2016년 7월 15일 터키의 쿠데타 실패 이후 95,000명 이상의 터키 시민들이 체포되었고, 최소한 16만 명의 공무원, 교사, 언론인, 경찰, 군인들이 여러 국영 기관에서 해고되거나 정직당했다. 이 숙청에 대해 유럽 의회는 2019년 3월 13일 터키와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U 가입 절차가 터키 개혁의 강력한 동기부여를 시작하던 중, 법치 분야에서 극명하게 퇴보했고, 1963년 9월, 터키가 관세동맹을 설립하여 최종 가입의 길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한 "동맹 협정"을 체결하면서 휴먼 리 터키는 처음으로 EU 가입을 약속 받았었다. 터키는 1987년 4월에 정식으로 EU 가입을 신청했고 2005년 10월부터 회원협상이 시작되었다.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와의 교역을 위해 터키 항구와 공항의 개항을 거부함에 따라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2006년 12월에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회담은 계속됐으나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반대로 무산됐다.

터키가 EU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일을 제치고 인구 면에서 EU의 가장 큰 회원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EU의 가장 큰 이슬람 회원국가가 될 것이다. 일부 유럽 관리들은 터키의 가입이 유럽을 "이슬람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터키는 EU에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2월 프랑스 뉴스 채널인 iT&E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많은 유럽인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유럽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터키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나토에서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키가 유럽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유럽 학생들은 유럽의 국경이 시리아에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은 어디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기본 개념은 무엇입니까? 유럽은 유럽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리적 면에서도, 터키는 유럽 국가입니까? 터키는 유럽에 보스포루스 해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터키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럽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유럽연합의 죽음을 원합니다."

2019년 5월 9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EU 가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U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터키를 다른 후보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고 기술적인 과정이어야 할 협상의 길에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입 협상은 정치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터키는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단호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터키의 현재 발전 상황을 제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자 없이 쉐젠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자유화 대화 과정의 최종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터키가 EU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조만간 터키 국민에게 무비자 여행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7월 15일, EU 외무장관들은 터키-EU 관계의 진전을 공식적으로 키프로스와 연결했다. 7월 15일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대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중해 동부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키프로스 서쪽의 시추 작업을 계속했고 키프로스 영해 내 키프로스 북 동쪽 2차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의회는 그러한 불법 행위가 EU와 터키의 관계 전반에 걸쳐 미치는 심각한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복해서 요청했다. 의회는 터키에 다시 한번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우호적인 정신으로 행동하며, 국제법에 따라 키프로스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터키의 지속적이고 새로운 불법 시추 활동을 고려하여, 의회는 정지를 결정했다. 당분간 EU-터키 고위급 회담의 추가 회의 위원회는 2020년 터키에 대한 사전 접근 지원을 줄이자는 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다."

유럽 관료들은 터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양키라는 만약 터키가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유럽연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실제로 유럽은 승산이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유럽연합(EU)이 비자면제를 승인하면 수천만의 터키인들이 유럽 여권자유구역에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하게 된다. 비자 자유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터키인들이 결국 유럽으로 이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시사잡지 위헨블릭은 1,100만 명의 터키인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터키인들이 중부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에르도안이 비자면제를 터키의 "쿠르드 문제"를 독일로 "수출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기독교민주연합의 바이에른 자매당인 마르쿠스 소더 기독교사회연합 대표는 "수백만 명의 쿠르드족이 에르도안의 손에 의해 박해를 피해 독일로 도망치기 위해 비자면제를 이용할 태세"라며 "우리는 터키 내부의 갈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배를 타고 도착하는 이민자는 줄어들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민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이 비자면제를 거부하고, 터키가 이민 수문을 다시 열어 보복할 경우 잠재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에서 온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수 있다.

소에렌 캐런은 뉴욕에 본사를 둔 Gatestone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이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624/turkey-threatens-migrant-crisis>〉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치열한 라이벌인가

글: 조나단 마르쿠스
(국방 및 외교 특파원)
번역: 한국 번역팀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오른쪽)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 대립하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였지만, 최근 들어 훨씬 더 긴장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이렇다.

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은 사이가 안 좋은가?

강력한 두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지역 지배권에 대한 치열한 투쟁 속에 있다. 그들 사이의 수십년 된 불화는 종교적 차이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란은 대부분 시아 이슬람교도인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순니파 이슬람 세력을 주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시아파와 순니파 무슬림의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동에 있는 일부 나라들은 시아파와 순니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이나 사우디로 부터 지원과 지도를 받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군주국이며 이슬람의 발상지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스스로를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이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 즉 혁명적 신권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이란은 이 모델을 자국 국경을 넘어 수출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사우디와 이란의 이견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이란의 적이었던 순니파 아랍인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 시켰다. 이로써 이란에 대한 결정적인 군사적 대항력은 제거되었다. 그것





은 바그다드에 시아파가 지배하는 정부를 위한 길을 열었고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은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아랍 세계의 혁명은 이 지역 전체에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켰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시리아, 바레인과 예멘에서 상호간의 의혹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란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란이 자체 세력 또는 그 대리 정부를 설립하여 이란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육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란이 여러 면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란(러시아)의 지원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단체들을 대부분 물리칠 수 있게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사실상의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의 군국주의적 모험주의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





키고 있다.

그는 이웃 예멘에서 반군 후티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란의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도박이 되고 있다.

이란은 후스틴들에게 무기를 밀수하고 있다는 비난을 부인했지만 유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의 후속 보고서는 테헤란의 후스틴들에게 기술과 무기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동맹인 시아 민병대 헤즈볼라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이끌고 있으며, 거대하고 중무장된 전투력을 장악하고 있다. 많은 관측통들은 사우디가 2017년 헤즈볼라의 지역 분쟁 연루와 관련해 지지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에게 사임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후 레바논으로 돌아와 사임을 보류했다.

또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으로 대담해졌고, 이란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보는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이란 억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 유대인 국가는 시리아 국경에 가까워진 시리아의 친이란 전투기의 침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5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에 가장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이란이 핵폭탄을 획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우방국은 누구인가?

폭넓게 말하자면, 중동의 전략 지도는 시아-순니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친사우디 진영에는 이집트와 요르단뿐 아니라 걸프만의 다른 주요 순니파들인 UAE와 바레인이다. 이란 진영에는 이단적인 시아파 종파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는 레바논에 본부를 둔 헤즈볼라를 포함한 친 이란 시아파 민병대에 의존해 순니파 반군 단체와 싸웠다.

이라크의 시아파가 지배하는 정부는 이란과 가까운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위 이슬람 국가와의 투쟁에 도움을 요청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와 이란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멘은 이란-사우디의 긴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여러 전장 중 하나이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냉전시대와 같은 지역적인 것으로, 수년간 팽팽한 군사적 대치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싸워왔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다양한 대리전(경쟁국 및 민병대를 지원하는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시리아는 명백한 예이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이 반후티진영에 의해 사우디 영토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공급에 대해 이란을 고발했다. 이란은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석유가 선적되는 걸프만의 전략적 수

로에 힘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최근 외국 유조선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직접적인 전쟁을 향해 가고 있는가?

군사력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군 대		563,000	251,500
탱크		1,513	900
대 포		6,798	761
전투용 항공기		336 (Ageing fleet in need of repairs)	338 (Modern fleet inc 64 Typhoon jets)
순찰선		194	11
잠수함		21	-
구축함		-	7

Source: IISS Military Balance 2017

BBC

지금까지 테헤란과 리야드는 대리인을 통해 싸웠다. 둘 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의 직접적인 전쟁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사우디 수도에 대한 주요 후스티의 공격이나 가장 최근의 경우처럼 주요 경제 목표에 대한 공격이 대리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에 대한 후티 공격은 불가피하게 테헤란과 리야드 간의 대립에 새로운 전선을 추가시켰다. 이란과 사우디가 해상 경계선을 넘어 대치하고 있는 걸프에서처럼 긴장이 고조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다른 서구 열강들에게 걸프만의 항해의 자유는 필수적이며, 국제 해상 운송과 석유 수송에 필수적인 수로를 막으려는 어떠한 갈등도 미 해군과 공군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란을 중동에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보아왔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점점 더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왕세자는 이란의 증가하는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취약성은 최근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입증되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우연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우디의 적극성은 또 다른 긴장의 요소를 더할 수밖에 없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42008809>〉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PD(Global Prayer Digest)와 조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 400종족을 선정하여 400일간 매일 한 종족을 소개하면서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SWM선교회에서는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기도네트워크를 통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알리며 연합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땅끝까지, 40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의 연합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은 다음과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기간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받아보시고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십시오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교회나 개인 기도자는 SWM 선교회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400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홈페이지 (<http://globalupm.net/gpd/>)를 방문하셔서,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십시오.



<http://globalupm.net/gpd/>

관련 문의: 이은옥 간사(714.999.8639)

관련문의 (한국): 임동혁 간사 (010-8632-0278)